

귀국보고서

파견대학	구엘프 대학(University of Guelph)
파견기간	2019.8.26. ~ 2019.12.13.
프로그램	학기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 유학생 보험

유학생 보험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구엘프 대학에 다니는 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보험을 들어주지만 그 이후로 여행을 다니는 기간은 개인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에 있는 여행자 보험 상품을 이용하면 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캐나다의 경우 eTA라는 전자비자를 신청하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 6CAD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자의 경우 입국 심사 시에 현지 대학교의 입학심사서가 필요합니다.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미국비자가 꼭 필요하니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항공권

일반적으로 캐나다로 가는 항공권은 에어캐나다와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면 쉽게 항공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이동을 하거나 미국으로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통해 이용한다면 여러가지 저가항공사가 있습니다. 저가항공사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몇몇개의 저가항공사의 경우 기내 수화물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토론토의 경우 한국보다 3~5도 가량 기온이 낮고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따뜻한 옷과 보습력이 좋은 스킨, 로션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클리

닝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옷은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샤워제품은 모두 캐나다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칫솔의 경우에는 모가 가는 칫솔이 없으니 모가 가는 칫솔을 선호하면 따로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구매하는 약 또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 언어 : 영어
- 문화 : 다문화
- 물가 : 한국이 1.5배에서 2배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 캐나다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캐나다의 중심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나-2. 공항 - 학교

: “그레이하운드”라는 회사의 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공항에서 학교까지 한번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 수강신청은 학교에서 레벨테스트 이후 레벨에 따라 일괄적으로 시간표를 배부하고, 수업 과목은 grammar, writing, reading, listening, speaking 5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수업내용은 레벨과 교수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쉐어룸 등)

: 저는 홈스테이에서 생활을 했는데, 홈스테이의 경우 호스트에 따라서 홈스테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홈스테이에서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홈스테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5. 교내·외 활동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놀이공원을 데려가거나 나이아가라 폭포 견학을 하는 등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램을 이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편하게 문화체험을 할 수 있지만, 인원제한이 있어 매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도시락을 싸서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 내에 카페테리아가 있지만 그다지 맛이 없고 비쌉니다. 구엘프 버스는 한 노선을 제외하고는 30분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버스 도착시간보다 5분가량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맵을 이용하면 버스 시간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 몬트리올, 퀘벡 : 프랑스어를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영어도 대부분 다루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는 없습니다. 퀘벡으로 한번에 이동하는 경로는 거의 없고 몬트리올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몬트리올을 먼저 들렀다가 퀘벡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합니다.
- 오타와 : 몬트리올과 퀘벡을 여행할 때 함께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생각보다 볼 것이 많고 도시가 예쁘기 때문에 일정을 2박3일 이상으로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 밴쿠버, 빅토리아 : 비가 오는 날이 매우 많기 때문에 우산이 있다면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도시 모두 교통 시스템이 구엘프와 매우 다른데 빅토리아의 경우 5달러를 버스 기사에게 주면 데이패스를 구매할 수 있지만, 밴쿠버의 경우 1,2,3 존으로 구역이 나뉘지고 구역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하는 지역이 어느 구역인지 잘 확인하고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 구엘프가 큰 도시는 아니지만 치안이 좋고 토론토와 인접한 도시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구엘프 대학의 경우 교환학생에게 다양한 액티비티 뿐만 아니라 실제 대학생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현지인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대학교 정문

대학교 전경



캠퍼스 내 건물

대학교 전경



나이아가라 폭포 견학

Activity